

금속캔 수급동향

Supply and Demand of Metal Can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1. 서론

PET병 맥주, 컵커피 출시, 원자재 가격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으로 최근 금속캔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로 캔 수요가 줄면서 평균가동률이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PET병 맥주, 컵커피 출시로 인해 음료시장에서도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속캔 판매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속캔 판매 현황

2003년에는 금속캔이 63억7,200만관을 판매해 2002년 64억4,100만관보다 1.1% 감소했으며 이는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전체 금속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음료관이 감소했으며 통조림관과 분유관, 에어졸관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조림관은 4.8%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97년도 수준에까지 육박했다.

관종별로는 2PCS 스틸캔의 경우, 탄산관은 감소한 반면 맥주관이 증가했지만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의 감소가 눈에 띈다. 2PCS 음료관은 2002년보다 7.1%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PCS 스틸캔은 커피관이 크게 감소했지만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등이 대부분 증가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97년부터 매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3PCS 음료관의 효자품목이 되던 커피관은 2003년에는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PCS 음료관의 부진으로 전체스틸 음료관이 감소를 기록했다. 전체 음료관은 38억7,800만관을 기록해 2002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조림관의 경우 꾸준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통조림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수산물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관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표 1] 2003년도 금속캔 판매실적비교(총괄)(내수, 수출포함)

(수량 : 백만개)

구분			2003	2002	2001	2000	증감(03/02년 대비)		
							수량	%	
음 료 관	알루 미늄	2PCS	맥주관	724	710	625	572	14	2%
			탄산관	279	188	272	217	91	48%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68	200	97	145	-132	-66%
			계	1,071	1,098	994	934	-27	-2%
	스틸	2PCS	맥주관	69	65	8	32	4	6%
			탄산관	1,012	1,171	1,452	1,325	-159	-14%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117	1,129	828	640	-12	-1%
			소 계	2,198	2,365	2,288	1,997	-167	-7%
		3PCS	탄산관	1			1	1	
			커피관	785	940	859	802	-155	-16%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894	686	624	699	208	30%
			소 계	1,680	1,626	1,483	1,502	54	3%
	계			3,878	3,991	3,771	3,499	-113	-3%
	합 계			4,949	5,089	4,765	4,433	-140	-3%
통 조 림 관	농 산 물		128	124	119	100	4	3%	
	수 산 물		464	435	392	419	29	7%	
	축 산 물		22	27	26	23	-5	-19%	
	합 계		614	586	537	542	28	5%	
분유관	분 유		46	45	54	58	1	2%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		14	18	28	23	-4	-22%	
에어졸	에어졸, 부탄		546	507	457	437	39	8%	
잡 관	0.5~20 l 관		203	196	183	160	7	4%	
총 계			6,372	6,441	6,024	5,653	-69	-1%	

제약관 및 기타관은 침체상황을 지속했다.

반면 에어졸관과 부탄관은 98년 이후 안정적 수요를 보이며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97년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표 1] 참조).

2. 음료관 규격별 판매 현황

관종별로 2PCS 알루미늄캔이 맥주관, 탄산관은 2002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주스, 전통 음료

캔은 감소했다. 2PSC 스틸캔 역시 스포츠 음료를 제외한 음료관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3PSC 스틸캔은 커피관이 16.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탄산관, 스포츠 음료 등이 대부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탄산관은 2002년에 비해 6배 이상 성장했다.

2003년 음료관은 2PSC 스틸캔인 탄산관, 스포츠 음료, 커피관 등의 부진으로 2002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2003년 음료관 규격별 판매실적 비교

(단위 : 천개, %)

구분			2003 실적(A)			2002실적(A)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알루미늄	2PCS	맥주관	355ml	640,453	28,654	669,107	655,242	17,146	672,388
			500ml	54,810		54,810	37,789		37,789
			기타		294	294			
			계	695,263	28,948	724,211	693,031	17,146	710,177
	탄산관	200ml	6,217		6,217	45,152		45,152	
		250ml	203,068	44,292	247,360	142,662		142,662	
		330ml	11,557		11,557			0	
		355ml	7,518		7,518			0	
		기타	5,838		5,838				
		계	134,198	44,292	278,490	187,814	0	187,814	
스포츠음료	150~355ml	24,403		24,403	24,063		24,063		
주스, 전통 음료, 기타	250~355ml	26,279	17,473	43,752	157,192	18,817	133,067		
합 계		980,143	90,713	1,070,856	1,062,100	35,963	1,098,063		
스	2PCS	맥주관	355ml	68,985		68,985	65,384		65,384
			500ml	58		58			
			소계	69,043		69,043	65,384	0	65,384
	탄산관	200ml	16,636		16,636	1,131		1,131	
		250ml	969,918	25,917	995,835	1,138,398	31,309	1,169,707	
		355ml						0	
		소계	986,554	25,917	1,012,471	1,139,529	31,309	1,170,838	
	스포츠음료	250ml	331,541	1,646	333,187	476,702	1,946	478,648	
		355ml	780		780	5,978		5,978	
		소계	332,321	1,646	333,967	482,680	1,946	484,626	
	주스, 전통	200ml	214,367		214,367	243,833		243,833	
		250ml	512,674	1,643	514,317	293,690		293,690	
		355ml				107,432		107,432	
		기타	53,925		53,925				
		소계	780,966	1,643	782,609	644,955		644,955	
	계		2,168,884	29,206	2,198,090	2,332,548	33,255	2,365,803	
	틸	3PCS	탄산관	200ml ~355ml	930		930	147	
250ml				30,410	174	30,584	28,288		28,288
스포츠음료		355ml	937		937	923		923	
		소계	31,347	174	31,521	29,211	0	29,211	
커피관		190ml	748,010	37,441	785,451	911,748	28,082	939,830	
		170ml	203,964	32,615	236,579	11,010		11,010	
		200ml	392,321	33,048	425,369	325,019	65,811	390,830	
		250ml	139,491	18,783	158,274	107,792	8,151	115,943	
		기타	20,569	21,574	42,143	115,064	23,833	138,897	
		소계	756,345	106,020	862,365	558,885	97,795	656,680	
계	1,536,632	143,635	1,680,267	1,499,991	125,877	1,625,868			
합 계		3,705,516	172,841	3,878,357	3,832,539	159,132	3,991,671		
총 계		4,685,659	283,554	4,969,213	4,894,639	195,095	5,089,734		

3. 통조림관, 분유관 판매 현황

통조림관의 경우 98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이
어가고 있다.

수산물용인 계2호와 간관, 4호관이 증가를 보
이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용 역시 증가를 보인 반면 축산물용은
19% 감소했다.

분유관은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표 3) 참조).

4. 잡관, 에어졸관, 미술관 판매 현황

잡관과 에어졸관은 98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수준을 상회하며 안정세를 보
이고 있다.

반면 미술관(제약관 및 기타관)은 98년 이후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002
년에 비해 22% 감소했다((표 4) 참조).

5. 상반기 음료관 생산·판매 현황

2004년 5월들어 금속캔 생산이 다시 증가하
면서 5억관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금속캔 총 생산량
은 5억1,505만관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5% 전월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생산 증가는 음료시장의 성수기를 대비해
생산물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석도강관의 가격 인
상에 따라 제관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
직임이 지속됐다. 5월들어 석도사들은 가격을 2
차 인상했다.

[표 3] 통조림관, 분유관 주요제품별 연도별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 포함)

(단위 : 천개)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통 조 림 관	참치	2PCS	322,650	316,511	203,332	188,369	231,307	268,157	318,368	340,225
		3PCS	13,614	31,375	42,312	79,306	79,806	41,239	46,106	28,872
		소계	336,264	347,886	245,644	267,675	311,113	309,396	364,474	369,097
	수산물	계2호	54,987	62,000	31,366	4,802	10,363	5,483	1,499	
		각관	42,378	30,750	25,859	16,821	15,884	9,846	5,800	6,561
		4호관	57,250	45,976	33,841	43,347	37,223	34,924	29,621	41,290
		기타	61,986	24,931	30,864	42,535	43,971	32,431	33,469	47,359
	계	552,865	511,543	367,574	374,680	418,554	392,080	434,863	464,307	
	농산물	4호관	53,226	43,086	28,626	42,889	49,585	51,313	65,621	70,413
		기타	51,291	72,499	58,016	50,613	50,809	68,083	58,931	57,524
계		104,517	115,585	86,642	93,502	100,394	119,396	124,552	127,937	
축산물	각관, 원형관	26,893	28,084	13,039	16,792	22,865	25,798	26,611	22,158	
	합 계	684,275	655,212	467,255	484,974	541,813	537,274	586,026	614,402	
분 유 관	분유	#401	14,577	21,963	9,898	6,829	12,275	5,394	5,649	4,401
		#501	49,076	35,540	42,318	44,042	14,563	48,211	39,519	41,650
	합 계	63,653	57,503	52,216	50,871	57,838	53,605	45,168	46,051	
총 계		747,928	712,715	519,471	535,845	599,651	590,579	631,194	660,453	



[표 4] 잡관, 에어졸관, 미술관 년도별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 포함)

(단위 : 천개)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잡 관	2l 미만	24,796	16,615	14,674	21,864	25,083	45,531	38,767	35,931
	2~4l 관	36,782	37,381	38,338	33,746	35,182	37,619	19,766	23,531
	4~6l 관							18,532	6,551
	6~9l 관	8,026	8,390	8,065	6,976	6,945	12,718	10,219	10,322
	17~18l 관	67,326	70,173	61,441	68,155	75,982	73,906	88,107	91,735
	20l 관1,906	1,906	2,098	1,843	2,416	1,916	3,119	1,734	16,516
	페일관	10,764	9,934	8,545	11,174	15,041	10,018	12,828	10,506
	기 타							6,082	8,382
	합 계	149,600	144,591	132,906	144,311	160,149	182,911	196,035	203,474
에어졸관	부탄가스관	248,000	216,186	185,619	271,483	315,881	297,737	331,377	369,067
	에어졸관	93,715	110,592	121,178	143,823	121,295	159,532	175,598	176,693
	합 계	341,715	326,778	306,797	415,306	437,176	457,269	506,975	545,760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	47,826	40,060	28,185	32,352	22,875	27,733	17,792	14,086
총 계	539,141	511,429	467,888	591,989	620,200	667,913	720,982	763,320	

5월 내수는 5억2,961만관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7.7% 크게 증가했다.

수출은 2,907만관을 기록, 25.1%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4.5% 감소했다.

캔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관사들은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석도사들도 수요자들의 불황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수 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 수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제관업계 전체가 살길은 물량감소와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 5] 참조).

II. 결론

맥주 시장에서 PET병 맥주, 커피시장은 컵커피 등장으로 캔이 음료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PET병 맥주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2.9%

[표 5] 5월 음료관 생산·판매실적

(단위 : 천관, %)

구분	월 별					5 월		
	03.5	04.4	04.5	전월비	전년비	2003년	2004년	전년비
생 산	492,858	477,533	515,055	7.9	4.5	2,168,280	2,293,584	5.8
내 수	537,433	450,083	529,612	17.7	△1.5	2,038,704	2,092,923	2.7
수 출	23,241	33,994	29,071	△14.5	25.1	83,299	125,097	50.2
출 하	560,674	484,077	558,683	15.4	△0.4	2,122,003	2,218,020	4.5

에서 12월 7.7%, 올 1월 10.5%, 2월 14.7%로 석달여 만에 15%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PET병 맥주 판매가 크게 성장하면서 2002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던 스틸캔맥주도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3년 실적도 2002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커피시장에서도 지난해까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양분하던 컵커피 시장을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등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캔커피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캔커피의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컵커피 시장은 1,100억원 규모로 올해 후발업체들이 가세하면서 1,5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국내시장에서 갈수록 캔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석도사들과 제관사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원자재값 인상과 관련 캔을 생산하는 제관업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철강재와 잉크, 도료 등 캔의 원부자재 가격이 15% 이상 올랐지만 납품가격은 원자재값 인상의 절반 수준도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소개업체들이 납품업체와의 공생을 위해 석도강판 가격인상을 자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제관업체의 '생존지킴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에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

E-m.ail : kopac@chollian.net